

“교권보호 제도 재정비해야”

전북교총 “홍기 위협·악성 민원에 교실 붕괴”... 전면 제도 재정비 촉구 도내 교원 64.7% “교육활동 보호되지 않아”... 침해 경험·목격 82%에 달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전북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위협, 악성 민원, 행사 고소 등이 교사의 기본 직서를 흔들고 있다며 교권보호 제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를 홍기로 쏜 사건과,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108건의 반복 민원이 제기된 사례를 계기로 나왔다.

전북교총이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 가운데 전북 응답자 133명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너 보호한다”는 응답은 7.5%에 그친 반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에 달했다. 보상이라는 응답은 27.8%였다.

또 최근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43.8% 동료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38.3%로 나타나 직·간접 경험 비율이 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교

권보호위원회 신고율은 15.9%에 머물러, 현장에서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침해 유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는 94.7%가 한 차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고, 언어폭력은 88%, 비언어폭력은 80.5% 위협 행동은 77.4%로 집계됐다. 실제 폭행이나 상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38.3%에 달했다.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 민원과 고소에 대한 두려움은 85.7%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82.7% 모욕 및 명예훼손 78.9% 몰래 녹음 75.2%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군산 A고 사례를 대표적인 악성 민원 사례로 제시했다. 학생간 갈등 조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학부모가 2년 동안 108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교장실을 찾아와 고성과 위협적 행동을 반복하며 학교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 대해 2호 처분을 내리고 피해 교원 6명 전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이 악성 민원

이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교육당국이 후속 보호 조치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경우 위기 행동이나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전담 인력과 분담·대체교육 체계가 부족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문 결과, 교원들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요구를 나타냈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91%가 찬성했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는 99.2% 악성 민원 맞고 소 의무화에는 97%가 찬성했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 교원 64.7%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82%가 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수치는 현상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라며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와 책임으로 교실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총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정책 요구안을 보완해 국회와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공식 전달하고, 교권 회복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때까지 지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16일 남원 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학생 안전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남원 생존수영 교육 현장점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안전주간을 맞아 학생 생존수영 교육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전북교육청은 유 권한대행이 16일 남원학생교육문화관을 방문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안전교육 현장을 살펴보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권한대행은 현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 체계와 수상 안전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체험 중심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남원학생교육문화관은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수영장을 직영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일 재개장했다. 현재는 학교별 일정에 따라 평일 오전 시간대를 활용해 수영강사와 수상안전요원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관내 98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기타 요인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개별화된 교육지도도 함께 운영하며 촘촘한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생존수영을 비롯한 학생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체험형 교육이 실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내 학부모 교육 전문성·현장 대응력 강화... 강사단 출범

자녀이해 등 8개 분야 구성

내달부터 학교 현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부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2026년 학부모교육 강사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16일 학부모교육 강사단 위촉식과 함께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강사단은 자녀이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역량교육,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기후·생태전환 교육 등 8개 분야에서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강의 시연을 포함한 엄격한 종합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내용



전달력, 학부모와의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우수 인력을 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학부모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사단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중 강의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 인력풀 정보는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되며,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오는 5월부터 학부모 교육 운영 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역량 강화 연수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통 전문가 오수향 강사는 다양한 세대 학부모와 소통하는 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 및 효과적인 소통 방법을 공유했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공개모집과 종합심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 강사들이 전북 학부모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강사단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학생해양수련원서 추모식

1997년 전주교 의사자 기리는 추모식도 함께 병행

해양 안전사고 예방·위기 상황 대응 중요성 체감 계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16일 수련원 내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전주고 의사자를 기리는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련원에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세월호 등대’가 조성돼 있다. 이와 함께 1997년

7월 부안 변산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 10여명을 구조한 뒤 끝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전주고 학생 3명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념비도 마련돼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교직원들은 물론 수련원에 참여 중인 학생들도 함께 자리해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전주고 학생들의 의로운 정신을 되새기며 생명 존중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추모 행사에

참여하면서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 대응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지유 원장은 “추모식을 통해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안전교육을 통해 전북 학생들이 수상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와 주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해양수련원은 수상·화재·교통 안전 분야의 이론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 조난 대피 훈련과 실내 수영장 수상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위기 대응 및 생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오상근 기자

학생 주권의식 역량 강화

전북교육청, 주권자시민교육 강화 선거교육 특강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주권의식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연 대상 선거교육 특강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2026 주권자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선거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선거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리를 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투표지를 넘어 주권자로 성장하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13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의에서는 선거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비롯해 선거제도 유형과 국내의 사례, 사례 중심의 선거·정치 미디어 테러시 교육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장성훈 전임교수가 강사로 나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담긴 철학과 주권자로서 갖춰야 할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실천 방안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강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가치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주권자시민교육의 의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박물관 자료로 보는 대한민국 선거 70년 이야기’를 주제로 2차 특강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히 투표 방법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주권자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거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권자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교육활동보호 담당자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대상 실무 중심 연수를 실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16일 전주치명자 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2026 전북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와 신고 및 대응 시 유의사항,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매뉴얼 보급과 함께 학교 현장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대응 학교 방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주도형 수업 혁신 확산을 위한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전주 그랜드호텔스런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의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활동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과 역량을 키워가는 전북교육청의 대표적인 수업혁신 정책이다.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는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해당 수업 모델을 연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도내 17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학교별 핵심 교원과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학교별 컨설턴트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운영 방향과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선도학교 운영 과제 안내를 비롯해 실제 운영 사례 발표, 학교별 분담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17개 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구성된 선도학교 컨설팅단이 함께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선도학교 17개교와 실증수업을 강화한 연구학교 6개교 등 총 23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KT는 16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등학교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융합교육과정·국가공인자격증 지원

전북교육청, KT와 직업계고 AI 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업계고등학교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주)KT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교육청과 KT는 16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계고등학교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운영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안기정 KT 전남전북법인 대표를 비롯해 도내 직업계고를 대표해 전주공업고,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자상업고, 덕암정보고, 한국지드과학교, 남원용성고, 원광보건고 등 7개교 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AI 융합 교육 정책 수립과 함께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지원,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에 나선다.

KT는 AI 실습 플랫폼 제공 및 운영 지원,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AICE 자격 취득 프로그램 운영, 교원 대상 연수 지원 등을 맡아 학교 현장의 실무 교육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AICE는 KT가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AI 분야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실무 중심의 AI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으로 평가받고 있다.

운영임 교육국장은 “KT의 AICE와 AI 실습 플랫폼을 도내 직업계고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전북형 AI 실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AI 실무역량과 국가공인자격증을 동시에 확보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 전략산업에 대응하는 AI 융합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